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 클린스만호, 오늘 바레인과 첫 경기

15일 오후 8시30분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서 맞대결
부상자 있어 완전체 아니지만, 전력 차 심해 낙승 예상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는 내일 바레인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첫 경기를 치른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오는 15일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아시안컵 E조 조별리그 1차전을 갖는다.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아시안컵 정상에 오르지 못한 한국은 유독 아시안컵에서 만난 중동팀에 약했다. 지난 2000년 레바논 대회 당시 준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져고, 2004년 중국 대회 8강에서는 이란에 무릎을 꿇었다. 2007년 동남아 대회 때는 준결승에서 이라크에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다.

또 파울루 벤투 전 감독(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사령탑)이 지휘했던 직전 2019년 UAE 대회에서도 8강서 카타르에 진 바 있다.

이에 클린스만호는 지난 6일 아시안컵 대비 '최종 모의고사'도 이라크와 붙으며 중동 팀에 대한 면역력을 키웠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1-0 승리를 거두면서 마지막 담금질을 잘 마쳤다.

클린스만호는 기세를 살려 바레인까지 꺾고 토너먼트 조기 진출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이번이 없는 한 한국의 승리가 예상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6위인 바레인은 한국(23위)보다 순위가 한참 떨어진다. 또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을 앞세운 한국이 전력 면에서도 훨씬 강하다.

바레인에서는 유럽파인 압둘라 유수프 헤랄(FK 블라다 볼레슬라프)이 핵심 자원이다.

2019~2020시즌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를 뒀 경험 있으며, 2020~2021시즌에는 UEFA 유로파리그(UEL)도 소화했다.

또 지난 2019년 대회 당시 한국과의 16강전에 출전해 한국전에 대한 경험도 갖췄다. 스페인 출신의 후안 안토니오 피시 감독이 추구하는 빠른 역습 축구에서 194cm의 장신을 활용한 공중 플레이는 한국 수비진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레인과 역대 전적에선 한국이 11승4무1패로 우위에 있다. 2007년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1-2로 진 게 마지막 패배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경기에 손흥민, 김민



재뿐 아니라 조규성(미트윌란), 황인범(즈베즈다), 설영우(울산), 김승규(알 사뻬) 등 최정예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황희찬(울버햄튼)과 김진수(전북)는 지난 13일 훈련까지도 재활에 집중했다. 이들은 1차전 결장이 예상된다.

제(수원)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황희찬의 빈자리는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문선민(전북), 양현준(셀틱), 이강인 등 다른 2선 자원들이 채울 전망이다.

다만 팀 전력은 온전하지는 않다. 부상 중인

이에 김진수의 왼쪽 풀백 포지션에는 이기

'2024년 용의 해' 전남드래곤즈를 이끌어갈 주장단 선임

주장으로 고태원·부주장으로 조지훈·유혜이를 선임



전남드래곤즈(이하 전남)가 2024년 용의 해를 이끌어갈 주장으로 고태원, 부주장으로 조지훈, 유혜이를 선임했다.

2016년 전남에 입단한 고태원은 상주상무(군복무)를 제외하고 전남에서만 활약한 원클럽맨이다. 전남에서 K리그1과 K리그2를 모두

경험한 고태원은 누구보다 팀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선수다.

팀의 가고 역할에 충실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고태원이 2024시즌 선수단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되었다.

전남 주장 고태원은 "2024년은 용의 해이자

전남드래곤즈 창단 30주년이다"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위치는 전남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전남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팀으로 선수단 모두가 원팀으로 K리그에 올라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부주장으로 선임된 조지훈은 프로 14년 차의 베테랑 미드필더다. 2023년에 전남에 입단한 조지훈은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를 오가며 현신적인 모습으로 팀에 귀감이 되었다.

함께 부주장으로 선임된 유혜이는 명실상부 베테랑 미드필더다. 전 소속팀인 도교 베르디(리그)에서 주장을 역임하며 리더십을 증명한 유혜이는 전남의 2024시즌의 부주장으로 팀을 이끌게 되었다.

조지훈은 "주장인 태원이 팀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하고 주장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부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남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시즌이 끝날 때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유혜이는 "2024시즌은 전남에서의 3번째 시즌으로 시작부터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승격이라는 팀의 목표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극 방목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은 오는 29일까지 귀국하여 짧은 휴가를 보낸 뒤, 광양에서 2차 동계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필은 고태원(1993.5.10. / DF / 187cm, 80kg), 2020~현재 전남 72경기 출전 6득점(K리그2), 2018~2019 상주 6경기 출전(K리그1), 2016~2018 전남 53경기 출전 1도움(K리그1), K리그 통산 131경기 출전 6득점 1도움, 출신교는 호남대 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MLB 데뷔 전인데...이정후,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목할 야구인 15인에 이름 올렸다

아직 메이저리그(MLB) 무대 데뷔전도 치르지 않은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샌프란시스코와 오글랜드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Bay Area)에서 주목할 야구인 15인에 이름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14일(한국시간) 올해 주목해야 할 야구인 15인을 선정하면서 이정후를 14번째로 꼽았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한국에서 '바람의 손자'로 알려진 자이언츠의 중견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정후가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활기찬 수비수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또 공을 베트에 맞는 기술이 뛰어난 전통적(old-school)인 의미의 좋은 타자"라고 소개했다.

이정후에 커다란 관심을 보여준 샌프란

시스코는 이정후에게 6년, 1억1300만달러(약 1486억원)의 조건을 제시해 계약에 성공했다.

이 매체는 이정후의 에이전트인 스포트 보라스를 두 번째로 뽑으면서 "이미 이정후를 샌프란시스코로 보낸 보라스는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남은 대어 4명인 코디 벨린저, 맷 채프먼, 블레이크 스넬, 조던 몽고메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시즌을 끝으로 오글랜드를 떠나 라스베이거스를 새 연고지로 삼는 애슬레틱스 구단의 팬들이 주목할 인물 중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외에 샌프란시스코 야구 운영 부문 사장이 파르한 자이다, 새 사령탑 밥 멜빈 감독, 팀 에이스인 로건 웹,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으로 구단주 일원이 된 버스터 포지 등을 15인 중 하나로 선정했다.

뉴시스

오타니 잃은 에인절스, 팀 홈런 19%↓·탈삼진 12%↓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를 잃은 LA 에인절스가 팀 홈런의 19%, 팀 탈삼진의 12%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블리처 리포트'는 지난 13일(한국시간) 이번 오픈 시즌에 전력 보강이 되지 않은 10개 구단을 분석해 게재했다.

매체는 1위로 에인절스를 지목했다.

에인절스는 지난해 73승 89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9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오타니를 지역 라이벌 LA 다저

스에게 빼앗겼다. 오타니와 포수 맥스 스테시, 내야수 데이비드 플레처를 잃은 가운데 이렇듯 있는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다.

루이스 가르시아와 아담 심버, 잭 풀리색을 영입했지만,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기여도)은 무려 마이너스 7.9로 분석됐다.

블리처 리포트는 "타임머신을 타고 192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투타겸업 선수 브렛 로건을 데려오지 않는 한 오타니 같은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빙속 김민선, 동계체전 3관왕 등극...팀추월 금메달

'신(新) 빙속여제' 김민선(의정부시청)이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했다.

김민선은 13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일반부 팀추월 경기에서 김윤지(동두천시청), 구일레르민 살렛(경기일번)과 함께 경기선발로 나서 3분27초26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지난 11일 여자 일반부 500m, 12일 1000m에서 금메달을 딴 김민선은 단체전 금메달까지 추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제105회 동계체전은 2월 중순 열리지만 스피드스케이팅은 국제대회 일정 때문에 11~13일 사전경기로 치러졌다.

국내 일정을 마친 김민선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이동해 이달 20일 시작하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같은 날 벌어진 남자 일반부 1500m에서는 엄천호(스포츠포토)가 1분49초65로 우승했다.

뉴시스

